

## 윌리엄 워즈워스의 급진적 정치관 재론

박찬길

### 1. 서론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가 1790년대에 급진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후 출판된 그의 자전적 장시 『서곡』(*The Prelude*)<sup>1)</sup>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백된다.

… 나는 점차로 더욱 시끄러운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곧 애국자가 되었다.  
나의 마음은 모두 민중에게 바쳐졌고,  
나의 사랑은 그들의 것이었다. (9권, 122~25행. 강조는 필자)

여기에는 단지 ‘그렇게’(thus)라고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서곡』의 9권과 10권은 그가 일종의 ‘급진주의자’(a radical)<sup>2)</sup>가 되게 된 상세한 경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정치적 개안(開眼)에는 마이클 보피(Michael Beaupuy)<sup>3)</sup>라는 이념적 스승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피가 워즈워스의 묘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실제 인물인 것을 감안하면 워즈워스의 급진적 정치관을 알아내는 일은 비교

---

朴贊吉 이화여대 교수. 주요 논문으로는 “Wordsworth in History: Radical Politics and the Poetry of the Poor, 1793~1798”(1993)이 있다.

적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위에 인용된 애국자(a patriot)라는 말도 당대에 도버해협 양편에서 정반대의 의미로 쓰였던 것처럼<sup>4)</sup> 급진주의 역시 시대와 정치적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뜻할 수 있다. 더욱이 워즈워스는 이 시에서 마이클 보피를 자신의 이념적 스승으로 지목하고는 있지만, 그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묘사에 주력할 뿐 그의 급진주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가 보피에게 배웠다는 급진주의에 대한 설명은 그들과 거지 소녀와의 조우를 묘사한 그 유명한 대목 바로 다음에 나온다.

- 
- 1) 『서곡』의 모든 인용은 J. C. Maxwell, ed.,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a Parallel Text* (Harmondsworth: Penguin 1971)의 1805년 텍스트에 의함. 이하 『서곡』에서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권수와 행수를 밝힘.
  - 2) 여기서의 ‘급진주의’(radicalism)는 물론 엄밀하게 정의된 정치적 용어나 철학적 용어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프랑스혁명이 그러했듯이 왕과 귀족이 상층부를 이루는 사회·경제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라는 느슨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혁명 직후 영국에서는 프랑스혁명의 이념이나, 의회개혁운동에 대한 동조자들을 넓게 보아 ‘급진주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급진주의자’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자코뱅’(Jacobin)은 그 어원이 시사하듯이 프랑스혁명에 대한 동조 쪽에 더 강조를 둔 개념이고, ‘개혁가’(reformer)는 영국의 개혁운동에 대한 참여를 주로 염두에 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의 배경에 관해서는 H. T. Dickinson, “The British Jacobins,” *British Radicalism and the French Revolution 1789~1815* (Oxford: Basil Blackwell 1985), 1~24면; M. Ray Adams, “Introduction,” *Studies in the Literary Backgrounds of English Radicalism* (Lancaster/Pennsylvania 1947), 1~22면 참조.
  - 3) 미셸-아르망 바샤레띠 보삐(Michel-Armand Bacharetie Beaupuy, 1755~96)는 혁명에 동참한 프랑스 장교로 실제 인물이다. 그는 후일 혁명군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후 장군이 되었다. 보삐에 관한 가장 자세한 정보는 M. M. Bussi re et  . Legouis, *Le G n ral Michel Beaupuy* (Paris/Perigueux: R. Delage & D. Joucla 1891)에 들어 있다. 영어자료로 가장 충실한 것은 G. M. Harper, *William Wordsworth: His Life, Works, and Influence* (London: Charles Scribner’s Sons 1916), 161~81면 참조.
  - 4)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같은 이에게 애국자란 물론 왕과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동조자를 흔히 ‘애국자’라고 불렀다.

나는 그와 더불어 열렬히 믿었다.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아,  
 적어도 이러한 가난은 곧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근면한 자, 겸손한 노고의 자식에게 보람을 찾아주려는  
 대지의 희망이 꺾이지 않고,  
 추방을 합법화하는 모든 제도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공허한 허세, 즉 한 사람 혹은 몇몇 소수가 내린 칙령에 의한  
 세속적인 의식과 잔인한 권력행사가 폐지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합이며 핵심으로서,  
 민중이 그들 자신의 법을 제정하는 데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

이런 주장은 이 정도만 얘기해놓고,  
 우리의 생각이나 대화 속에서 관심을 끌었던 다른 일들,  
 공적인 행동들과 공적인 인물들, 그리고 매일 매일 일어나는  
 기록과 전언들의 변화무쌍한 바람이 만들어내는 감정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려 했더라도,  
 여기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겠다.  
 그 대신 여기서는 아주 미미한 구석에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내어 소개하려 한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기억할 가치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내게 해준 건,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내 애국자 친구와  
 몇몇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9권, 519~32, 542~54행)

그러나 워즈워스는 이 대목에서조차도 가난 퇴치라든가 부패한 정치 제도의 개혁, 혹은 좀더 강화된 국민의 입법권 같은 원론만 거론할 뿐, 당시에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국내외의 정치적 사건들 자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엉뚱하게도 워즈워스가 보피에게 들었다는 청춘남녀 한 쌍의 비극적인 이야기

인 것이다. 보피에게서 들었다는 청춘남녀의 연애담이 어쩌서 당시의 시사적인 관심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사연에 직접 관련되었던 보피가 그 얘기를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어쩌서 그 이야기를 “기억할 가치가 충분하게” 해주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워즈워스가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중요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빼먹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령 워즈워스가 여기서 보피의 이념적인 가르침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의 요소를 머금고 있는 시적 진술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시적 진술도 그가 정치적 입장을 바꾸고 난 훨씬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워즈워스가 생각하는 급진주의의 내용 규명을 여전히 어렵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워즈워스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열렬한 지지라든지, 그 이후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입장이라는 것이 정작 무엇이었는지, 과연 그것이 당대나 현재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진짜로 급진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측면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시적 상상력의 성장을 좀더 설득력있게 묘사하기 위한 시적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 이른바 ‘급진주의자’ 워즈워스의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워즈워스가 만일 그가 자신의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급진주의자였다면, 그의 급진적 정치관이 정치적 실천으로 표현되었어야 하는 정치적 장은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이었다. 왜냐하면 1792년 말에 워즈워스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10권, 190행)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곧 이어 발발한 영불전쟁으로 아미앵조약이 체결되는 1802년까지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시적 주장을 좀더 따라가보면, 그가 그때 돌아오지 않았었다면 그는 이념적 동지들과 함께 혁명의 대의를 위해 순교했을 것이라고 한다(10권, 195~96행). 당대에 실제로 프랑스의 혁명전쟁에 참전하여 프랑스 편에 서서 싸우다 전사한 영국의 지식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sup>5)</sup> 워즈워스라고 해서 그러지 못했을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경우에는 감상주의적 과장의 혐의가 짙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혐의는 프랑스에서의 혁명적 순교에 버금갈 만큼 의미있는 정치적 실천에 의해서만 불식될 수 있을 텐데, 워즈워스는 당대에 한창 진행중이던 영국의 개혁운동에서 그러한 정치적 실천을 했는가?

1793년부터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이 출간된 1798년까지 워즈워스의 정치적 실천의 흔적을 찾고, 그가 『서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급진주의의 내용을 채워넣기 위하여 많은 전기작가들과 워즈워스 연구자들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워즈워스 자신의 시적 진술을 의미있게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다.<sup>6)</sup> 그런 의미에서 1793년 씌어지고 당대에는 출판되지 못했던 「랜다프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A 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 이하 「편지」)<sup>7)</sup>는 워즈워스의 급진주의의 실체를 가장 직접적

5) 존 오스왈드(John Oswald)는 에든버러 출신의 시인이자 공화주의자였는데 한 때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고 인도에서도 군복무를 한 경력이 있으며, 훗날 빠리에 정착하여 자코뱅 클럽(Jacobin Club)에 가담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혁명군에 자원하여 사령관으로 활약하다 1793년 방데(Vendée)에서 전사했다. Alfred Goodwin, *The Friends of Liberty: The English Democratic Reform Movement in the Age of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Hutchinson 1979); David Erdman, "The Man Who was no Napoleon," *The Wordsworth Circle* 12호 (1981 겨울), 92~96면.

6) 그러한 실패의 가장 두드러진 예가 니콜라스 로(Nicholas Roe)이다. 그는 워즈워스가 유명한 급진주의자들의 친구였다는 것, 또 그의 시가 폐인을 포함한 당대의 반정부인사들의 출판물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조지프 존슨(Joseph Johnson)에 의해 출판된 것과 같은 일종의 '정황증거'라고 급진적 단체의 회원 등록증 같은 좀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인 Nicholas Roe, *Wordsworth and Coleridge: The Radical Ye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는 그의 그러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파편들을 제외하고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7) W. J. B. Owen and J. W. Smyser, eds.,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1권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31~51면. 이하

이고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개서한은 당시에 한창 진행중이던 ‘팸플릿 전쟁’(Pamphlet War)의 한 구성요소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것이 당대 개혁운동의 맥락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의미, 가령 그 안에 담겨 있는 강령들의 당대적 맥락에서의 정치적 의미나 그 현실적합성 등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글이 씌어진 1793년 당대의 영국 개혁운동의 맥락에 워즈워스의 글을 놓고 분석함으로써, 워즈워스가 한 때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급진주의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것이 당대에 가질 수 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추론해보려고 한다.

## 2. 1790년대의 팸플릿 전쟁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이하 『고찰』)을 1790년 11월 1일에 출판하자, 영국의 지식인사회는 혁명에 관한 논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고찰』이 출판된 지 불과 2주일 만에 『한 혁명협회 회원이 에드먼드 버크 경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에 답하여 보내는 편지』(*A Letter to the right Hon. Edmund Burke, in Reply to His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 c. By a Member of the Revolution Society*)가 발매되었고, 연말까지는 메리 월스톤크라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인권의 옹호』(*Vindication of the Rights of Men*)를 포함하여 10여 편의 유사한 반론들이 출판되었다.<sup>8)</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반론은 이듬해 3월 16일에 출판된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 이하 『권리』)였다. 그

「편지」에서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Prose* 1권과 면수만 밝힘.

8) James T. Boulton, *The Language of Politics in the Age of Wilkes and Burk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3), 75~96면 참조.

이후 3년 동안 버크-페인의 논쟁을 모방한 정치 팸플릿의 숫자만도 약 70여 편에 달했다.<sup>9)</sup>

프랑스혁명에 관한 이러한 정치적 논쟁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팸플릿 전쟁’이라고 적절하게 이름지어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당대의 혁명적 개혁운동들을 촉발하고 주도해나갔다는 점이다.<sup>10)</sup> 영국의 개혁가(reformer)들은 『고찰』을 쓴 버크에게 고마워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책이야말로 그들의 급진적 이념을 명확하게 재정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sup>11)</sup> 당시의 급진적 정치조직들은 페인의 『권리』를 그들의 새로운 정치적 복음서로 받아들이고, 그 주장들을 그들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가령 1790년 이래 위축되어 있던 ‘헌법적 지식을 위한 모임’(Society for Constitutional Information, 이하 SCI)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페인의 책 덕분이었다. SCI의 지도자였던 혼 톱(Horne Tooke)은 페인의 『권리』를 보급하는 데 전력을 다했고, 그 결과 SCI뿐만 아니라 셰필드, 맨체스터, 노리치 등 지방의 급진적 정치조직들까지 활성화되었다. 『권리』의 값싼 보급판의 유통과, 그 쉽고 ‘천박한’ 문체, 그리고 광범위한 개혁프로그램 등은 1791년과 93년 사이의 급진적 개혁운동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지휘 아래 SCI의 활동이 활력을 되

9) 같은 책, 265~71면.

10) ‘팸플릿 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는 Carl B. Cone, *The English Jacobins: Reformers in the Late 18th Century England* (New York: Scribners 1968), 96~113면 참조. Marilyn Butler, *Burke, Paine, Godwin, and the Revolution Controvers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의 서론도 같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볼턴(Boulton)의 책이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영국에서의 논쟁을 가장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Olivia Smith, *The Politics of Language* (Oxford: Clarendon 1984)가 급진주의의 수사법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볼턴의 연구를 인상적으로 보완했다.

11) 179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급진적 개혁가인 존 텔월(John Thelwall)은 버크가 본의 아니게 개혁운동의 대의에 봉사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히 말하건대 그 책(『고찰』)은 그것에 대한 반론들 전체가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민주주의자들을 지각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냈다.” O. Smith, 앞의 책, 36면.

찾은 데 이어 1792년 1월에는 구두수선공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에 의해 ‘런던통신협회’(London Corresponding Society, 이하 LCS)가 조직되어 노동자계층을 개혁운동의 장으로 불러들였다. 여기에 1792년 5월에는 ‘급진적 휘그’(radical Whig)들이 모여 만든 ‘민중의 친구들’(Friends of People)까지 가세하여 영국의 급진적 개혁운동은 일대 중흥기를 맞게 되었다.<sup>12)</sup>

당시의 피트(Pitt) 정부는 페인주의(Painism)로 무장된 급진적 정치조직들의 확산에 자극받아 1792년 5월 21일에는 ‘선동적 문헌에 대한 국왕 포고’(Royal Proclamation against Seditious Writings and Publications)를 선포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소위 교회와 국왕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치성 테러가 자행되도록 유도했다. 존 리브(John Reeve)가 1792년 11월 20일에 조직한 ‘공화주의자와 수평파에 대항하여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모임’(Associ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Liberty and Property against Republicans and Levellers)은 그러한 정치테러의 구심점이었다.<sup>13)</sup> 이들은 직접적인 테러말고도 페인주의적 팸플릿의 확산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나 모어(Hannah More)의 『마을정치: 대장장이 잭 앤빌과 석수 톱 호드의 대화』(*Village Politics: A Dialogue between Jack Anvil the Blacksmith*

12) 1790년대 영국의 급진적 개혁운동단체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S. Maccoy, *English Radicalism 1786~1832: from Paine to Cobbet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5); E. E. Black, *The Association: British Extraparliamentary Political Organization, 1769~1793* (Cambridge, Massachusetts 1963); E. Royle and J. Walvin, *English Radicals and Reformers 1760~1848* (Brigh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그러나 가장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는 Alfred Goodwin, 앞의 책과 E. 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Harmondsworth: Penguin 1968)이다.

13) 왕당파의 반격에 관해서는 David Eastman, “Patriotism and the English State in the 1790’s,” Mark Philp, ed., *The French Revolution and British Popular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46~68면 참조.



and Tom Hod the Mason)와 같은 쉽고 대중적인 내용의 정치 팸플릿을 보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페인과 같은 장(場)에서 같은 무기로 그의 이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워즈워스의 「편지」는 이러한 팸플릿 전쟁의 맥락에서, 버크적인 수구 논리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의 일부로 씌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 문헌이 결과적으로 당시에 출판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워즈워스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팸플릿을 쓰는 일 자체가 정신적으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일정한 정치적 집단에 소속시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정치적 몸짓이었다. 특히 이 「편지」가 씌어지기 몇달 전인 1792년 12월 18일에 페인이 궐석재판에서 ‘선동적 유언비어 유포’(seditious libel)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래 개혁적 지식인들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었으며, 1793년 2월 1일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페인적 이념을 가진 문헌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출판사나 서점 주인들이 정부 탄압의 1차 목표가 되었다.<sup>14)</sup> 많은 개혁가들이 이것을 계기로 하여 전향했고, 급진성향의 토론 조직들도 페인적 원칙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갓 돌아온 지식인으로서 명백하게 페인주의적인 원칙들로 가득 찬 팸플릿을 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공개되었다면 신변의 위협도 무릅써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편지」는 초기 워즈워스의 정치적 행적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워즈워스 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편지」에 대한 연구의 주된 경향은 그것의 사상적 뿌리를 추적함으로써 워즈워스 정치관의 계보도를 그려내는 것이었다. 에밀 르구이(Émile Legouis), 크레인 브린튼(Crane Brinton) 그리고 A. V. 다이시(Dacey)는 루쏘와 같은 프랑스 사상가들의 영향을 강조했고, 아서 비티(Arthur Beatty)는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이 가장 중요한 사

14) A. Goodwin, 앞의 책, 268~73면.

상적 배경이라고 지적했다.<sup>15)</sup> Z. S. 핑크(Fink)의 자세한 연구에서는 해링턴(Harrington)과 밀턴(Milton)을 중심인물로 하는 17세기 영국 공화주의를 「편지」의 이념적 원천으로 꼽기도 했으며, 레슬리 F. 차드 2세(Leslie F. Chard II)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sup>16)</sup> E. N. 후커(Hooker)와 워즈워스 산문집의 편집자인 W. J. B. 오웬(Owen)과 J. W. 스마이저(Smyser)는 당연하게도 토마스 페인의 이념을 「편지」의 주된 배경으로 보았고, 제임스 찬들러(James Chandler)는 「편지」에서 발견되는 합리주의자의 자세와 개인적인 목소리의 묘한 결합 속에서 상대편 진영의 우두머리인 버크의 자취를 읽어내기도 했다.<sup>17)</sup> 「편지」의 이념적 배경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편지」가 하나의 철학적 전통에서 나온 하나의 일관된 이념체계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이데올로기적 혼란의 표현이라는 주장을 낳기도 했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연구하는 워즈워스 학자들이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분석에만 치중해온 이유는 내용이야 어떻든 「편지」는 그것

- 
- 15) Émile Legouis, *The Early Life of William Wordsworth 1770~1798*, introduced by Nicholas Roe (London 1988); Crane Brinton,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Romanticists* (Oxford: Clarendon 1926); A. V. Dicey, *The Statesmanship of Wordsworth* (Oxford: Clarendon 1917), 52~53면; Arthur Beatty, *William Wordsworth: His Doctrine and Art in Their Historical Relations*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Press 1922), 22~32면.
- 16) Z. S. Fink, "Wordsworth and the English Republican Tradition,"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 Philology* 47호 (1948), 107~26면; Leslie F. Chard Jr., *Dissenting Republican: Wordsworth's Early Life and Thought in their Political Context* (Hague: Mouton 1972), 65~109면.
- 17) E. N. Hooker, "Wordsworth's 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 *Studies in Philology* 28호 (1931), 522~31면; W. J. B. Owen and J. W. Smyser, "Introduction: General," Owen and Smyser, eds., 앞의 책, 19~25면; James Chandler, *Wordsworth's Second Nature: A Study of the Poetry and Politics* (Chicago/Lond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84), 23면.
- 18) John Williams, *Wordsworth: Romantic Poetry and Revolution Politic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 58면.

이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당시에 결국 출판되지 못했으며, 또 집필 시점 역시 분명하지 않고,<sup>19)</sup> 따라서 당대 영국 개혁운동의 맥락에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실제적 의미는 기껏해야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출판되었다면, 가령 버크의 『고찰』을 촉발했던 비국교도 목사 리처드 프라이스(Richard Price)의 『애국심 소고』(*A Discourse on the Love of Our Country*)나 중산층적 성격이 강했던 제임스 매킨토시(James Mackintosh)의 『프랑스 옹호』(*Vindiciae Gallicae*), 좀더 노동계급적 개혁운동의 강령이었던 페인의 『권리』 등과 비교했을 때, 워즈워스의 「편지」가 어떤 수준의 개혁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워즈워스가 실제로 개혁운동에 잠깐이라도 가담했다면 어떤 조직이 가장 알맞았겠는가? 「편지」에 담긴 워즈워스의 급진주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성있는 것이었겠는가? 이 글에서는 ‘폭력’ ‘평등’ 그리고 ‘공화주의’의 개념들을 기준으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보고자 한다.

### 3. 폭력에 대한 옹호

랜다프 주교는 혁명적 폭력의 정점이라고 할 만한 루이 16세의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유의 제단이 노인과 선량한 사람들, 힘없는 여자들, 종교지도자들, 몰락한 군주의 충성스런 신하들의 피로 더럽혀져 있는 것에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며 그것으로부터 도망친다. 그 제단 위로 군주 자신의 피가 흐르는 것에 나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다. <sup>20)</sup>

19) 「편지」의 집필 시점에 대한 의견은 대략 1793년 2월과 같은 해 6월로 나뉜다.

*Prose* 1권, 20~21면의 주5 참조.

20) Alexander B. Grosart, ed.,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1권

주교의 이러한 경악은 당대 영국 지식인사회에서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혁명 지도자들이 9월학살 이래 보여준 잔혹성은 영국인들에게 전통적인 반프랑스적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혁명 초기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윌리엄 카우퍼(William Cowper)는 루이 16세가 처형된 지 2주 후인 1793년 1월 29일에 쓴 편지에서, “프랑스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겠소. 그들은 나로 하여금 프랑스 왕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했소. 내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리고 그들은 나로 하여금 바로 자유라는 말을 역겹게 느끼도록 만들기도 했소. 그것 역시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소”라고 말한바 있다.<sup>21)</sup>

워즈워스 역시 그로부터 1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는 혁명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표명하지만(10권, 38~82행), 처형 직후의 반응은 당시 어느 혁명지도자의 입장보다도 강경한 것이었다. 워즈워스에게는 이러한 모든 소동이 “요즘 유행하는 안일한 애도의 울부짖음”에 불과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동정이라는 정열은 ‘이성’(reason)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이성의 작용은 우리로 하여금 왕이 감내한 고통과 왕에 의해 저질러진 죄 사이의 불균형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군주제가 애당초 (왕이라고 하는) 보통의 인간을 ‘반자연적인’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 그리고 왕을 처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다소 무시해야만 했던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것 등이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했다면 그것이 다소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밖의 이유에 의한 동정심이란 불합리하고 허약한 심성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한다(*Prose* 1권, 32면). 워즈워스의 이러한 입장은 1793년 영국사회에서는 지극히 냉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London: Edward Moxon, Son, And Co. 1876), 25면.

21) P. A. Brown, *The French Revolution in English History* (London: Frank Cass 1918), 89~90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워즈워스와 가장 흡사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람은 페인이었다. 페인은 프랑스 왕가에 대한 버크의 빗나간 동정심을 언급하면서, 버크가 “가장 열악한 감옥에서 가장 불쌍한 삶,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단 한번의 동정의 눈길도 주지 않았고, 단 한번이라도 그들을 측은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 그는 깃털을 동정할 뿐, 죽어가는 새는 망각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sup>22)</sup> 그러나 이렇게 주장한 페인조차도 왕의 처형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했다.<sup>23)</sup> 그렇다면 왕의 처형을 옹호한 워즈워스의 입장은 1793년 당시 개혁운동의 맥락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소수에 속했음에 틀림이 없다.

워즈워스의 이러한 상대적 과격성은 혁명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이라는 좀더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될 수 있다.

뭐라구요! 당신은 혁명의 시기가 진정한 자유의 계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를 만큼 그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무지합니까?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아집과 타락상 때문에 자유는 폭정의 전복을 위하여 바로 그 폭정의 무기들을 종종 빌려와야 하고, 평화로운 통치를 위해서는 폭력으로 자유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자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엄중한 필요성을 개탄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자유의 최고법이 확보된다는 것에 의해 위로받습니다. … 정치적 미덕은 도덕적 미덕을 희생하고서야 발전되는 것입니다.

(*Prose* 1권, 34면)

1793년 영국 개혁운동의 맥락에서 이렇듯 혁명적 폭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 영국의 개혁운동조직들은 프랑스 혁명정부가 ‘브룬스비크 선언’(Brunswick Manifesto)<sup>24)</sup>에 의해

22) Thomas Paine, *The Thomas Paine Reader*, eds. Michael Foot and Issac Kramnick (Harmondsworth: Penguin 1987), 213면. 페인의 『권리』에서의 모든 인용은 이 책에 의함.

23) Thomas Paine, “Reasons for Preserving the Life of Louis Capet,” 같은 책, 394~98면.

24) 유럽의 반혁명동맹국들이 1792년 8월 1일에 프랑스 혁명정부에 대해 선포한

침공의 위협을 받아 앞다투어 지원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 9월학살 이후에도 현금이나 무기 등을 직접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국민공회’(National Convention)에 축하연설을 보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25)</sup> 그러나 알프레드 구드윈(Alfred Goodwin)에 의하면, 국민공회에 파견된 영국 개혁운동의 사절단은 영국 내 개혁적 지식인들의 혁명적 열기를 과장하여 전달했고, 소위 ‘자코뱅 음모설’(Jacobin conspiracy)<sup>26)</sup>을 입증하려는 영국 정부는 영국 개혁운동가들의 의도를 왜곡하기도 했다고 한다. 프랑스혁명 직후 영국 개혁운동이 보여준 프랑스에 대한 지지는 열광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태세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시 가장 급진적인 성향을 띤 단체였던 LCS는 1792년 4월 2일 발표된 그 첫번째 성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결의사항—본 협회는 혼란과 폭력에 대한 혐오감을 천명하는 바이며, 본 협회가 지향하는 바는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개혁이므로 권력의 남용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거나 우리 동료들에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무기는 이성, 결연함, 만장일치이다.<sup>27)</sup>

영국에서는 루이 16세의 처형 이후 비폭력적 의회청원운동이 개혁운동의 주된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디킨슨(H. T. Dickinson)에 따르면 1793년 당시에 영국에서 프랑스식 혁명을 추진하려는 집단은 거의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해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위협적인 경고문. Colin Jones, *The Longman Companion To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Longman 1988), 21면.

25) A. Goodwin, 앞의 책, 244면.

26) 영국 개혁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랑스 혁명정부와 협력하여 영국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는 주장.

27) Mary Thale, ed., *Selections from the Papers of the London Corresponding Society 1792~17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0면.

경우는 없었다.<sup>28)</sup> 오히려 존 텔월(John Thelwall)과 윌리엄 고드윈, 토마스 페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개혁가들은 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완전히 배격했다.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극단론자가 전무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가령 앞서 언급했던 존 오스왈드(John Oswald)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속지 말고 똑똑히 알아두자.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오직 힘이 기 때문이다. 힘은 권리의 기초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권리와 힘은 동일한 것이다. … (권력의) 남용을 개혁하는 데 감히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파괴의 빗자루로 이 땅의 표면에서 쓸어버려라. 민중의 적을 동정하는 자의 눈에는 저주가 있으라. 그런 사람을 변호하려는 자의 혀는 말라버릴지 어다.<sup>29)</sup>

이러한 발언은 당대 프랑스의 어느 혁명집단의 논리보다도 과격하지만, 1793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논리가 당대 개혁운동의 의미있는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즈워스의 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덜 과격하다. 위즈워스도 오스왈드처럼 폭력의 사용을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게 폭력이란 권리의 기초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육에 의하여 혁파되어야 할 전제주의의 무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즈워스가 왕의 처형을 포함한 최근 프랑스의 유혈사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는 것은 영불전쟁의 와중에는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관계당국의 입장에서는 전쟁 발발 전에 국민공회에 보내졌던 수많은 영국 개혁모임들의

28) H. T. Dickinson, *Liberty and Property: Political Ideology in Eighteenth Century Britain* (New York: Holmes & Meiner Dub 1977), 259~69면.

29) 같은 책, 264면에서 재인용. H. T. 디킨슨은 앞서 우리가 인용한 존 오스왈드를 국회의원 제임스 오스왈드(James Oswald)의 장남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오스왈드(James Oswald, 1715~69)와 혼동하고 있다. 제임스 오스왈드의 신원에 관해서는 Sidney Lee, e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52권 (London: Smith Elder Co. 1895), 326면 참조.

지지성명들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워즈워스가 프랑스로부터 방금 귀국한 처지였고, 가장 최근의 사태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팸플릿을 출판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워즈워스가 보여주는 급진성은 그가 시에서 꿈꾸었던 실제 영국의 개혁운동에서 동료 개혁가들과 운명을 같이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니콜라스 로(Nicholas Roe)가 개혁운동조직의 조직원 명단에서 워즈워스의 이름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공 가능성은 그의 연구양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폭력’의 문제에 관한 한 워즈워스는 LCS에조차도 기피 인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평등에 대한 옹호

워즈워스의 급진적 정치관은 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다. 평등에 대한 해석은 해석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큼이나 다양한데, 가령 반체제적 비국교도 성직자들에게 평등은 신 앞의 평등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했다. 그것은 그들이 하층계급에게 특별히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공직 취임을 가로막는 ‘심사율’(Test Acts)의 폐지를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0)</sup> 메리 월스톤크라프트는 여성의 평등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평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더 의미있는 평등론은 민중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억압을 영속화하는 전통적인 사회위계질서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등론은 그것을 포함하는 개혁논리의 성격과 그 성취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기도 하다.

30) James T. Boulton, 앞의 책, 90~91면.



랜다프 주교는 그의 글에서 평등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평등은 신체적 힘이나 지적 능력의 평등이 아니라 상호간의 지배로부터 똑같이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문명사회에서의 인간의 평등이란 지혜와 정직성과 재능과 근면성의 평등이나 이러한 능력들의 적절한 활용으로 얻은 재산의 평등이 아니라, 똑같은 법에 똑같이 복속되고 똑같이 보호받는 것이다. 이 위대한 나라(영국)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 이런 면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sup>31)</sup>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랜다프 주교의 논리에 대해 위즈워스는 「편지」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평등, 즉 자유가 존재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평등은, 명백하게 보편적인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만 완전하게 얻을 수 있다. (*Prose* 1권, 42면)

이것은 “인간은 그들의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계속해서 그러하다. 따라서 시민적 권리의 차별은 오로지 공공의 필요성에만 의거해야 한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Citizens, 1789)의 첫번째 항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sup>32)</sup> 위즈워스는 이러한 원칙을 원용하여 귀족들을 게으름과 위선을 장려하는 불합리하고, 분별없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군주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갖는 불평등성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그러나 당대 영국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은 평민에게 어떤 성격의 평등이 어떤 방식으로 허용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정치적 평등에

31) Alexander B. Grosart, ed., 앞의 책, 26면.

32) John Hardman, ed., *The French Revolution: The Fall of the Ancient Regime to the Thermidorian Reaction, 1785~1795*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114면.

관한 한 워즈워스의 입장은 확고하다. 워즈워스는 ‘보편적인 대의제’(universal representation), 즉 모든 남성의 보통선거를 주장했다.

한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도덕하게도 재산을 청렴한 인격의 근거나 근본적 법칙으로 삼아서, 그 결과 한 시민이 입법이라는 어려운 의무를 수행할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 미덕, 재능, 학식이 국민이 바라는 것의 전부이다. (*Prose* 1권, 38면)

워즈워스가 재산의 유무를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거의 모든 급진적 정치조직들이 주장했던 모든 남성의 보통선거보다도 한결음 더 나아간 급진적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버크나 랜다프 주교 같은 보수적 휘그뿐만 아니라 ‘민중의 친구들’ 같은 급진적 휘그들로부터도 비판받을 만한 것이었다. 급진적 휘그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 아서 영(Arthur Young)은 1793년에 이렇게 주장했다.

어떤 대의정부에서도 사람들만이 대표된다면, 다시 말해 한푼도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표된다면, 만일 전자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후자의 숫자보다 열 배나 더 많다면,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표자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그들의 선거구민의 의지를 진정하게 반영하는 투표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그 사회의 모든 재산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처분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권력에 공격과 약탈이 따르지 않으리라고 잠시라도 생각할 만큼 이론이라는 것이 엉터리라면, 이성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의 사실로서 프랑스의 경우를 참조해보도록 하라.<sup>33)</sup>

제임스 매킨토시는 폭도나 무식한 군중들에 의해 정부가 구성된다는 생각에 대한 반대의사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피력했고, 존 텔윌 역시

33) Alfred Cobban, ed., *The Debate on The French Revolution: 1789~1800*, 2nd edition (London: A. & C. Black 1960), 404면.

서민들이 중요한 정치적 지위에 임명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정부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페인은 물론 재산을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에 명백하게 반대했지만, 그 역시 하인들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sup>34)</sup> 요컨대 당대 급진적 개혁가들이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재산 없는 자에 대한 정치적 권한의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중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 즉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 및 피선거권을 보유할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위즈워스의 급진주의가 갖는 민주적 성격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민중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영국의 급진적 개혁가들까지도 유보를 두는 명목상의 이유는 그들이 입법활동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앞서 인용한 랜다프 주교의 평등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민중계급이 요구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권리주장에 대한 우려, 즉 경제적 평등의 요구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사유재산권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칙의 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사유재산권 자체는 존 오스왈드나 토마스 스펜스(Thomas Spence) 같은 극단론자를 제외하고는<sup>35)</sup> 페인을 포함하여 어떤 개혁가들도 정식으로 문제삼지 않았다. 가장 급진적이었던 LCS 역시 1795년에 “우리가 가진 평등의 개념들에는 재산의 평등이나 사적 소유권의 침해는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sup>36)</sup> 대부분의 개혁가들은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수

34) H. T. Dickinson, 앞의 책, 251면.

35) 존 오스왈드는 황무지와 공유지가 서민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view of the Constitution of Great Britain*, Paris 1792, 59면(서지사항은 H. T. Dickinson, 앞의 책에서 재인용). 토마스 스펜스는 “자연권에 대한 급진론자의 개념을 가져야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지의 과실을 즐기는 자연상태로의 회귀를 옹호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H. T. Dickinson, 앞의 책, 267면에서 재인용).

평파(leveller)의 혐의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바빴다. 조지프 타워즈(Joseph Towers)라는 개혁가는 「조합원과 유식한 영국인의 대화」(A Dialogue between an Associator and a well-informed Englishman)라는 글에서 영국 개혁가의 입장을 모던트(Mr. Mordaunt)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변호한다.

영국에서는 어떠한 자유의 친구들의 조직도 재산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전파한 적이 없다. ... 만일 그러한 중상모략적 출판물에 그런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유인물은 공화주의자들이나 수평파들에 대항하는 사 이비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진정한 자유의 친구들을 중상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느 누구도 주장한 적이 없는 원칙을 반박해온 것이다.<sup>37)</sup>

평등에 관한 한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토마스 페인도 자신이 경제적 의미에서 수평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페인은 장자상속제를 격렬하게 비판했으며,<sup>38)</sup> 자신이 제창한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진적이고 온건한 방식으로 부를 재분배할 것을 주장했다.<sup>39)</sup>

워즈워스 역시 사유재산권 확보가 시민사회 건설에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라는 것을 인정했지만(*Prose* 1권, 42면), 그러한 타협적 입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가령 워즈워스는 프랑스 혁명정부의 교회재산 몰수를 급박한 국가적 이익이 사유재산의 보장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했고, 수평파라는 규정은 부인하면서도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즈워스는 한편으로 페인처럼 장자상속제의 불합리성을 역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빈민들에게) 너그럽기 이전에 정당해야 한다”며 빈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주장

36) H. T. Dickinson, 앞의 책, 255면.

37) A. Cobban, ed., 앞의 책, 405면.

38) T. Paine, 앞의 책, 228~29면.

39) 같은 책, 307~64면.

하기도 했다. 위즈워스의 빈민들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이어서, 가령 그가 “현재의 강요된 재산상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인류의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건전하고 현명한 규정들에 대한 필요성”(Prose 1권, 43면. 강조는 위즈워스)을 역설할 때처럼 그것이 때때로 사유재산권이 라는 원칙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즈워스는 당대 영국의 지식인사회에서 수평파라는 낙인을 받아 마땅한 몇 안되는 개혁가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즈워스가 가진 정치이념의 비영국적 급진성을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다.

## 5. 공화주의에 대한 옹호

정치적 팸플릿으로서 「편지」의 가장 특이한 점은 공화주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즈워스는 「편지」의 제목과 내용에서 공히 명시적으로 공화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편지」가 씌어진 시점이 아무리 빨리 잡아도 9월학살과 루이 16세의 처형 이후 공화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했을 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화주의에 대한 위즈워스의 명백한 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위였다. 위즈워스가 공화주의와 관련한 그의 고립된 입장과 공화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의 정치적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의 세론에 따르자면, 공개적으로 옹호할 만큼 배짱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이념과 싸우기 위해 어떤 주장을 전개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 틀림없다. 투옥과 형틀과 같은 가장 강력한 원군들의 존재는 당신이 팔을 휘둘러 공격할 대상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으니까. (Prose 1권, 36면)

위즈워스의 말대로 랜다프 주교는 공화주의를 “동등한 자들에 의한

폭정”(the tyranny of their equals)이라는 표현으로 일축한다. 랜다프 주교의 주장은 농부들과 직공들의 정치적 참여를 자연의 질서에 대한 거역이라고 규정하는 이른바 ‘거대한 존재의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고전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었다. 워즈워스는 이러한 난공불락의 정치적 이념을 상대하기 위해 유연하고도 현실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실제정치에서 ‘동등한 자들의 폭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같은 민중의 타락은 그들의 사악한 본래적 특성이 아니라 그들을 오랜 세월 괴롭혀온 정치적 타락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민중편에서 자유를 오용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리라는 것이다. 워즈워스에 따르면 시냇물은 점차적으로 스스로를 정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아름다운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Prose* 1권, 34면).

일반 민중의 지적 능력이 선거와 같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관해서 워즈워스는 근면성과 양심을 갖춘 이웃들 가운데 누가 자기 자신과 동료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약간의 유용한 지식”(a moderate portion of knowledge)뿐이라고 주장한다. ‘동등한 자들에 의한 폭정’이라는 랜다프 주교의 공화국 비판에 대해서도 워즈워스는 그것을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축한다. 공화국이란 본래 그 정의상 어떠한 폭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rose* 1권, 39면).

워즈워스의 공화주의 옹호는 이러한 방어적인 논리에서 그치지 않고 원론적인 이념논쟁의 차원에서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우선 군주제에 대한 공화제의 본질적인 우월성을 주장한다. 워즈워스의 공화주의론은 사회계약론, 국민주권론, 국민저항권 등 다양한 정치이론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국 17세기 공화주의 전통에 가장 깊이 뿌리박고 있다.<sup>40)</sup> 다른 한편으로 워즈워스는 군주제 자체의 비판을

40) 워즈워스에 대한 17세기 공화주의자들의 영향은 Z. S. Fink, 앞의 글; Leslie

통해 공화제 정부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 군주제 정부의 본질적인 불안정성, 군주의 직무가 가진 비인간성, 장자상속의 어리석음, 귀족 칭호의 해약 등은 자연스럽게 공화제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에 관한 한 1792~93년의 영국 급진주의자들은 두 가지의 명확한 이념적 지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17세기의 공화주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혁명의 도화선이었던 페인의 이념이었다. 이 두 지표는 몇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첫째, 영국 헌법에 대한 태도의 차이인데, 17세기 공화주의자들은 소위 ‘노르만 멍에’(Norman Yoke)론에 입각하여 노르만 정복 이전의 앵글로색슨 헌법, 즉 왕, 상원, 하원의 완벽한 조화를 이상으로 삼는 제한적 군주제를 회복하려고 한 데 반해,<sup>41)</sup> 페인은 그러한 역사적 선례를 존중하기보다는 이성에 근거하여 현재의 필요에 맞춘 헌법제정을 더 중시했다.

이러한 근본적 입장차이는 당연히 상이한 성격의 개혁을 요구했다. 페인은 기존의 정치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공화주의적 헌법을 만들기 위하여 프랑스의 국민공회와 같은 대표자모임의 개최를 요구한 데 반해, 17세기 공화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적은 과거 앵글로색슨 정치제도가 확보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영국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에 공화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페인의 『권리』가 1792~93년에 급진적 정치집단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LCS와 SCI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집단들의 공식적 정강은 페인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공화주의에 가까웠다. 구드윈은 그러한 집단들이 페인주의와 어떻게 달랐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혁명적 계획안의 몇몇 조항들은 다른 면에서는 『인간의

---

F. Chard, 앞의 책; John Williams, 앞의 책 참조. 17세기 공화주의에 대한 짧지만 유용한 연구는 F. D. Dow, *Radicalism in the English Revolution 1640~1660* (Oxford: Basil Blackwell 1985) 참조.

41) F. D. Dow, 앞의 책, 37~38면.

권리』를 새로운 정치적 복음서로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정치조직들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혹은 심지어 단호하게 거부되었다. 가령 그들은 영국의 헌법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국민공회와 같은 것에 의해 기초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페인의 주장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그들은 뿌리에서 가지까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으며, 군주제와 상원에 대한 페인의 직접적인 공격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색슨의 입헌주의에 대한 급진주의적 신화나 17세기의 공화주의적 이상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또 현재 프랑스의 동조자들에 의해 존중되는 1688년 명예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페인처럼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청원과 같은 합법적이고 합헌적 방식을 국민공회의 소집보다 선호했다. 국회의 매년 소집과 보편적인 남성선거권 같은 전통적인 급진주의적 요구사항 너머로 나아갈 준비가 된 조직들은 거의 없었으며, 그들이 박애와 국제적 연대라는 프랑스의 혁명적 이상에 공감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모방을 목적으로 프랑스 헌법개혁의 세부사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sup>42)</sup>

워즈워스의 공화주의는 페인주의와 전통적 공화주의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다. 워즈워스는 합법적으로 구성된 공화국이 다른 어떤 형태의 정부보다 억압적 원칙을 적게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페인주의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워즈워스의 또다른 페인적 요소는 ‘노르만 명예’의 신화든 명예혁명이든 어떠한 역사적 선례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극도의 합리주의적인 태도이다. 대부분의 급진적 정치단체가 잃었던 권리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에 반해 워즈워스는 페인이 그러하듯이 역사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의지한다.

군주제, 그중에서도 세습군주제의 본질상, 수행되어야 할 의무들과 그것들을 수행할 권한 사이에는 언제나 거대한 불균형이 있게 마련이다. ... 바로 이러한 점이 나로 하여금 군주제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반대하게 만들며, 이러한 나의 입장은 인간의 영원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왕의 직무란 인

42) A. Goodwin, 앞의 책, 175~176면.



간적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다.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완전하고 보편적인 대의제는 군주제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그 두 가지는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서로 싸워야만 한다.

(*Prose* 1권, 41면)

워즈워스가 이처럼 역사적 선례보다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것은 군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군주제 비판은 영국 군주제를 문제삼지 않던 당대 영국의 개혁운동 조직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령 워즈워스가 「편지」에서 “대의원을 선발하는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영국 내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의지가 보편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그 사회의 노예이다”(Prose 1권, 46면)라고 주장했을 때 LCS와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고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거권 자체보다는 사회의 의지의 보편적 표현이라는 원칙에 강조가 두어지고 있다. 선거권의 문제가 LCS의 개혁가들에게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적이었지만 워즈워스에게는 공화주의의 원칙의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워즈워스는 사실상 「편지」에서 ‘개혁’(reform)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개혁’이 헌법의 ‘교체’보다는 ‘개량’을 전제로 하는 말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대의 개혁조직 중 가장 급진적이었던 LCS의 경우는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우리 조상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우리에게 물려준 그 헌법)이 죄인들과 음모가들의 폭력과 계략에 의해 손상되었고, 그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훼손당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sup>43)</sup>

43) “Address of the LCS to the Nation at Large,” 1792. 5. 24, M. Thale, ed., 앞의 책, 11면.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워즈워스의 공화주의는 그 기본적인 전제들과 지향점들에서 당대의 어떤 정치조직의 정강들보다도 폐인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폐인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워즈워스의 주장에는 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킬 어떠한 현실적 청사진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폐인의 경우에는 영국의 헌정적 진공상태가 미국이나 프랑스 식으로 국민공회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4)</sup> 반면에 대부분의 영국 개혁가들은 적어도 그레이 법안(Grey Acts)<sup>45)</sup>이 부결될 때까지는 의회개혁의 가장 좋은 수단이 인민들이 국회에 청원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제헌의회는 소집을 촉구하는 폐인의 선동은 1792년 12월 에든버러에서 첫번째 제헌의회를 소집한 스코틀랜드 개혁가들에 의해서 최초로 호응을 받았다. 당시 영국의 급진적 정치조직들은 그레이 법안이 부결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1793년 11월에 에든버러의 국민공회에 대표를 파견했다. 에든버러 국민공회(Edinburgh National Convention)는 17세기 공화주의의 요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프랑스의 국민공회를 모방했고, 그만큼 기존의 개혁조직들과는 구분되는 급진적 성격을 띤 정치집회였다.<sup>46)</sup> 그러나 국민공회에 참가했던 영국 개혁가들 중에 그들의 모임이 웨스트민스터 국회를 대치할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sup>47)</sup> 워즈워스는 한때 개혁의 대의에 뜻을 같이 했던 랜다프 주교가 “의회개혁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침묵을 지키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만(*Prose* 1권, 48면), 워즈워스 자신도 ‘자유의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편지」를 쓰기 불과 수개월 전에 소집된 에든버러 국민공회의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언급하지도 않았

44) T. Paine, 앞의 책, 285~307면.

45) ‘민중의 친구들’의 창립회원이었던 찰스 그레이(Charles Grey)가 1793년 5월 6일에 제안한 의회개혁 법안으로, 부결되었다. A. Goodwin, 앞의 책, 281~82면.

46) 에든버러 집회의 정치적 의미에 관해서는 같은 책, 284~85, 296~306면 참조.

47) 같은 책, 296~306면.

다는 것은 위즈워스 자신도 당대 영국의 개혁적 정치조직들의 이념적 한계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편지」에 들어 있는 위즈워스의 공화주의의 성격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페인에 가깝고, 실천적으로는 17세기의 전통적 공화주의에 더 가까워서, 그 둘 사이의 매울 수 없는 간극 위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폭력, 평등, 공화주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본 위즈워스의 급진적 정치관은 이념적으로는 당대의 급진적 개혁조직들보다는 페인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때로 페인을 능가하는 급진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급진성은 당대 영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위즈워스의 순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의 정치관의 현실적합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갓 돌아온 1793년의 위즈워스는 모국에서 개혁운동가로 활약하기에는 너무 순진했고, 너무 과격했으며,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다. 1798년 나폴레옹의 스위스 침공으로 프랑스혁명의 이상이 변질되었음이 확실해질 즈음, 영국의 개혁운동도 궤멸상태에 빠지게 되고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던 개혁가들도 이때쯤이면 대부분 은퇴하거나 전향하지만<sup>48)</sup> 영국 개혁운동의 맥락에서 위즈워스가 경험한 정치적 좌절은 훨씬 일찍부터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진주의자 위즈워스는 분명하게 존재했지만 현실에 채 뿌리내리기도 전에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1795년까지 불분명하게 남아 있는 그의 공적 활동 중에 의미있는 정치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48) 같은 책, 416~50면.